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자치 선도

〈전북·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상생협력 협약사항 등 제도개선 활동 추진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원을”

특별법 개정 협력 포함 공동협력사업 지속 발굴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등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식이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공동결의문을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네 번째로 출범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시도가 결

어간 길을 주의 깊게 보며 전북형 특례를 발굴 했고, 이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3개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라며,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및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27일 무주덕유산리조트 호텔 티롤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배성수 무주덕유산리조트 사장, 남기재 무주경찰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덕유산리조트 ‘호텔 티롤’ 재개관

화재로 휴장 후 2년 9개월간 리모델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상징인 호텔 티롤이 2년 9개월 만에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7일 오전 11시에 열린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호텔 티롤 개관식에는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을 비롯해 무주덕유산리조트 배성수 대표이사, 무주군 황인홍 군수,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호텔 티롤은 지난 2021년 2월 20일 밤, 지붕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지붕과 테라스 등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며 일부 객실과 식당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바 있다.

이후 33개월이라는 긴 휴장기간 동안 새로 적용된 건축 및 소방법

등 현재의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현대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날 27일 재개관을 하게 됐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 덕유산의 모습처럼 고객을 사람으로 모시는 호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배성수 대표이사는 “오늘 재개한 호텔 티롤과 곧 개장할 스키장의 운영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유산리조트는 가족호텔 객실을 전면 리모델링해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와 남원시는 27일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1년 1월 유네스코로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유네스코 지문·심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

2013년 잠정목록 등재 후 실제 등재까지 10년 걸려

세계인들로부터 전북 가야유산 역사적 가치 인정받아

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4일 실제 등재까지 10년이 걸렸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학계 및 시민과 함께 1,500년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부

화유산을 새롭게 찾아내고, 조사·연구하고, 그 가치를 밝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인이 전북 가야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함께 누리고 보존해



아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은 패거를 거두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야고분군이 온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인 만큼 향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남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문화재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전북 가

야사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로서 세계인과 함께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남원=김기무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특장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특장 1번지! 김제 특장차 2단지로 투자!!



특장차 제2산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 ~ 2026년(9년)
- 위 치 :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부용리 일원
- 총사업비 : 652억원(진입로 164억원 포함)
- 면 적 : 336,322㎡
- 입주가능업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분양시기 : 2025년 하반기(예정)
- 분양가격 : 2025년 하반기(결정)

투자선도지구 인센티브

- ▶ 재정지원 ▶ 기반시설 국비 100억원 지원
- ▶ 조세감면 ▶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 규제특례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적용

입주문의 : 김제시 투자유치과 ☎ 063_540_3950

